

3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올들어 최대폭 랠리..다우 5.8%↑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폭등세로 마감. 다우 지수는 5.8% 올라 6900선을 회복. 씨티그룹 비크람 팬디트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저가매수의 불을 당겼음. 여기에 `업틱 룰` 도입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랠리를 가속화시켰음. 팬디트 CEO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올해 1~2월 1년여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다"며 "현 주가는 씨티의 잠재 실적과 자본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 최근 불거진 위기 설을 일축. 이에 따라 금융주가 큰 폭으로 올랐음.
버냉키 "대형은행 몰락, 좌시하지 않겠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vital)"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연준과 버락 오바마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안정된다면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이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美증시, `업틱룰` 부활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업틱 룰이 한 달 이내에 재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리 샤프로 SEC 위원장과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업틱 룰은 공매도시 시장가격 밀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대공황 이후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가 지난 2007년 폐지됐었음.
美 도매채고 `5개월 연속 감소	미국의 도매 채고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매 판매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미국 상무부는 1월 도매 채고가 전월대비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최근 7년래 최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한 것임. 도매 판매는 2.9% 줄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이에 따라 도매 판매 대비 채고 비율은 1.3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임.
유가 하락..EIA 수요 감소 전망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4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36달러(2.9%) 내린 45.71달러로 마감. 이날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전망으로 장중 48.3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수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음.
IMF, 세계銀 이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0일 전세계 경제가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 앞서 IMF는 지난 1월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이와 함께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번 성장률이 우리 생애에서 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제목	주요 내용
中 車판매, 4달만에 증가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은 지난달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자동차 판매가 82만7,6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했다고 10일 발표. 이에 힘입어 1~2월 전체 자동차 판매도 156만대로 2.7% 증가. 같은 기간 미국내 자동차 판매는 135만대로 전년 대비 39% 급감.
中 소비자물가 7년만에 마이너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년만에 처음 마이너스대를 기록. 중국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층 가중되며 중앙은행이 추가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확대.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일 지난 2월 CPI가 전년비 1.6% 하락했다고 발표.
日디플레 심화...TV 가격 1년새 16%↓	넷케이신문은 GfK재팬, BCN 등 가격조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LCD TV 가격이 1년새 16% 하락했다고 보도. 지금까지 하방경직성을 보였던 MP3와 PC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
日, 기업자금 지원 위해 민관합동 기금 조성	일본 정부가 일본산업은행(DBJ) 등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대형 기업들을 돕기 위해 민관합동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GDP 2% 투입 경기부양...G-20 공조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10일 "오는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금융부실 처리 등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공조방안 및 보호무역주의 저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기관 부실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공조, 금융규제, 감독 시스템 개편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안, 경기순응적 BIS 비율 기준 등도 논의될 예정.
GM대우 "4월에도 감산...공장 부분 가동중단	GM대우 고위관계자는 10일 "다음달에도 공장별로 판매 상황 등을 감안,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동차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어느정도 수요가 회복된다면 휴무일수를 3월보다는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M대우는 지난해 12월1일 부평2공장의 조업중단을 시작으로 각 공장별로 재고량 감축을 위해 가동중단을 지속해 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